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23
vol. 261



패트리모니얼 전시

2023.11.18

2024.04.14

Van Cleef & Arpels

Time, Nature, Love

시간, 자연, 사랑

Curator 큐레이터 · Alba Cappellieri 알바 카펠리에리

Designer 디자이너 · Johanna Grawunder 요한나 그라운더

Van Cleef & Arpels

D MUSEUM



SUBLIMAGE LES EXTRAITS

강력한 리페어 효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는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와 스웨티아 성분에 깃든 이로운 힘이 담긴 나이트 컨센트레이트입니다.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며 리페어 효과를 선사하는 탁월한 조합의 포몰러로, 사용한 첫날부터 피부가 충분히 휴식을 취한 듯 송고하게 빛납니다. 1개월 뒤, 새롭게 태어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CHANEL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38



BVLGARI
ROMA

DIVAS' DREAM



DIOR



16



22



2023년 11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다뮤지엄(D Museum)에서 연달히 이별: 시
간, 자연, 사랑(Van Cleef & Arpels: Time,
Nature, Love)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매종이 창립된 1906년부터 지금까지 선보인 3백
개가 넘는 주얼리 및 워치, 고귀한 오브제와 90여
점 이상의 오리지널 아카이브를 만날 수 있다.
문의 1877 - 4128



26



10

- 13 **TIMELESS ELEGANCE** 정인의 고귀한 예술적 터치와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집약해 손목 위에서 빛나는 한 폭의 그림을 선사하는 아티스틱 워치.
- 16 **우리 안에 생동하는 음율** 여러 곳에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한 미술관을 전시 무대 삼고 '음악을 주요 매개로 해서 펼쳐질 타이베이 비엔날레 2023의 존재감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 17 **서늘하게 스며드는 불안과 고독에 대하여** 국내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양유연(b. 1985) 작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작년에 개최된 제58회 카네기 인터내셔널이다. 해외 갤러리의 러브콜이 갑작스레 몰려들면서 작가는 올해만 세 차례 개인전을 치렀다. 잠깐 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11월 중순 개막하는 타이베이 비엔날레를 앞두고 있는 양유연 작가를 만났다.
- 18 **EXHIBITION IN FOCUS** 이 가을, 혹여라도 놓치면 아쉬울 법한, 우리를 둘러싼 사물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주는, 심지어 관람 동선이 효율적 이기도 한 서울 한남동 일대의 전시를 소개한다.
- 19 **BIG FACE** 빅 스톤과 다이아몬드로 확실한 존재감을 선사하는 링 컬렉션.
- 20 **GET THE LIST** 소중한 이들을 위한 연말 선물을 계획 중이라면 조금 더 서둘러보는 것은 어떨지. 곧 다가올 시즌에 참고하면 좋을 프리 홀리데이 기프트 셀렉션.
- 22 **황혼에서 새벽까지, 슈퍼 SUV로** 카레이싱을 즐기는 기본이 들면서도 패밀리 카로 활용할 수 있는 슈퍼 SUV가 꽃을 활짝 피우는 느낌이다. 모든 주행 환경에 맞는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니, 번덕스러운 취향을 지닌 운전자에게도 섹스 있고 묵묵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슈퍼 SUV의 존재감은 한층 더 경쾌하게 다가온다.
- 23 **THE GREAT REUNION** 완벽에 가까운 정밀성, 철저한 장인 정신,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의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프린트 X 포르쉐가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 24 **A FAIRYTALE OF THE LAKE** 바람과 구름뿐 아니라 호수와 은은한 파도,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비까지 함께해 한 편의 동화 같은 캣워크를 펼쳤던 2024 루이비통 여성복 크루즈 쇼 리포트.
- 26 **SOMEONE LIKE YOU** 깊어가는 계절, 화이트 럭셔리로 완성하는 남자의 가을 룩.
- 34 **STAY HOME** 패션 하우스의 미적 감각과 철저한 장인 정신의 조합으로 탄생한 인테리어 셀렉션.
- 35 **A MAN AT DESK** 작은 아이템 하나에도 근사한 취향이 깃들여 있는 그 남자의 책상.
- 36 **WHERE TO GO** 공간 컨설팅을 받고, 직접 요리도 해보고, 예술 작품 감상과 운동까지, 떠오르는 프리미엄 문화 복합 공간 6.
- 38 **EDITOR'S PICK** 피부에도 휴식을 주어야 할 시간. 은은한 향까지 더한 이달의 뷰티템 13.

GRAFF.COM



BUTTERFLY

G R A F F

Style 조선일보 Issue.261 November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상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마케팅 | 박명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산비 분해재판 | 리은 인세 | 테라비피에스 기사 문의 02-733-5330 광고 문의 02-73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후카시와 나오토의 디자인으로 탄생한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허버 레이드백 체어 가격 미정
바탕이 란타이 by 인파니.



캐비닛도여 장미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듈식 시스템 선반 BM0253 라지 3백71만원 **칼한센**.



유리형등스틸 소재의 조합이 도시적인 느낌을 전하는 PH 셉티미아 1천9백만원대 **루이스폴센**.



고유의 핸드메이드 세라믹 텍스처가 클래식한 느낌을 부여하는 피피 캔들 스틱 26만6천원 **아스타에 드 빌라르브**.



장난감 150만 1,300원까지 정직한 유즈 마리아 칼라스 스페셜 에디션 1백60만원 **몽발랑**.



로돌 코팅한 Au585 14K 솔리드 골드 남용 정직한 유즈 마리아 칼라스 스페셜 에디션 1백60만원 **몽발랑**.

for families Selection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때론 상상력이 샘솟게 만드는 나만을 위한 유기적 공간, 서재를 위한 아이디어.



짐을 수 있어 휴대가 용이한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미르셀 반다스 스튜디오의 라운지 체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상편을 장식한 신형 그래픽 디테일이 돋보이는 카운테 트롤리 가격 미정 **몽발랑**.



안재야사든 원하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고 107지 필름 스타일 옵션 기능을 갖춘 리카 소포트 2 60만원대 **리카**.



BANG & OLUFSEN



RALPH LAUREN

부드러운 80%가죽 소재와 원도 스타일링 디테일이 특징인 라운지 체어 18만9천원 **몽발랑**.

인파니 02-3447-6000 **칼한센**
www.carlhansen.com/en **몽발랑** 02-518-1380 **아스타에 드 빌라르브** 0507-1328-7098 **바카라** 02-3448-3778 **루이스폴센** 02-6462-6262 **루이 비통** 02-3432-1854 **몽발랑** 02-3442-6888 **리카** 1661-0504 **몽발랑** 1877-5408 **칼한센** 070-8881-8006 **리몬** 1600-1547 **필프 로렌** 02-6004-0265



빛의 열량이 없고, 장시간 사용해도 광량이 일정해 눈이 편안한 이몰레드 오리지널 불투명 43만3천원 **리몬**.



원목에 핸드메이드로 자개를 감싼 반다스 차기 스물 네비 13만9천원 **바카라** by **몽발랑**.



HERMÈS H08, TIME, A HERMÈS OBJECT





케이스에 대한 주얼리 장식 디자인이 돋보이는 세피아 주얼리 박스
2백45만원 **아스티에 드 발리브**.

팬더 스톱 모터브 장식의
카르띠에 베이비 카탈리나 세트
30만원 **카르띠에**.

캐릭터 디자인이
귀여운 느낌을 지어내
아이랑에 오브제로
제작인 요켓은 피규어
80만원 **바비**.

90cm 높이에 110cm 폭에
300g 무게로 300g 무게로
300g 무게로 300g 무게로

캔버스 소재로 제작했으며, 목재 후판과 황동 도금 경첩으로
내구성을 강화하고 견고하면서도 편안한 기증 카펫의 등받이와
좌석 쿠션을 더한 이틀리예 오이의 스윙 보트 기증 **루이비통**.

영국 클래식 자동차를 모티브로 삼아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디트로이트
화이트 3백96만원 **디트로이트**.

부드러운
빛으로 공간을
채워 참대
열조명으로
제작된 벨라
살바 25만9천원
리본.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300만원 **스노우볼**.

가운뎃길 디자인이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로 제작된 이틀리예
카르띠에 세트는
300만원 **카르띠에**.

for babies Selection

엄마도 아이도 모두 만족하는 러블리
베이비 룸을 위한 셀렉션.

대형 바퀴와 확장 시스템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부드럽게 주행하는
부가류 57cm 미팅 **루이비통**.

무선 충전 가능한 높은 휴대성을
지원하는 180도 회전
패널 로즈 59만원 **루이비통**.

독창적인 디자인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며, 앉았을
때 몸을 감싸는 듯 편안한
느낌을 주는 업 주니어
3백만원 **바비**
by 인피니.

바비류 02-3448-3778 **카르띠에** 1877-4326 **스토크** 1544-8342 **아스티에 드 발리브** 0607-1328-7098
루이비통 02-3432-1854 **리본** 1600-1547 **디트로이트** 070-5067-1173 **루이비통** 062-351-9988 **부가류** 1577-0680
리우드 02-3442-3012 **스노우볼** 02-1522-9065 **인피니** 02-3447-6000

아스티에 드 발리브

(왼쪽 위에서 차례대로) **빈클리프 아펠 레디 아펠** 품 대 자
모르 주 다이얼 안에 연인 러브 스토리를 담아 시련스럽고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한다. 38mm의 로즈 골드 케이스에 라
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배젤을 장식했다. 매종만의 다윈드
에-메이선 레트로그래프 모듈 장치를 장착했으며, 36시
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가격 미팅. 문의 1877-4128

쇼파드 해피 다이아몬드 총추는 15개의 무반 다이아몬드
가 우아함을 발산하며, 타히티산 블랙 머더오브펠로 다이
얼을 장식해 오묘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기
에 총 0.167캐럿의 34개 다이아몬드로 배젤을 장식해 화려
함이 돋보인다. 8천7만원. 문의 02-6905-3390

블레스 오아신 파페슈업 데이트저스트 31 아이러니한 위
치의 다이얼 안에 상행하고 단정한 느낌을 전하는 플로럴
모티브를 추가해 특별함을 배가했다. 꽃 가운데를 24개 다
이아몬드로 장식해 고급스러움을 연출한다. 가격 미팅. 문의
02-2112-1251

클로프 자른셀 릴렉스 파리의 릴리리 정원에서 영
감을 받은 오벌 다이얼에 머더오브펠로 다이아몬드를
더해 프랜차 기둥을 표현했다. 총 0.46캐럿의 73개 다
이아몬드와 총 0.01캐럿의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6백만원대. 문의 02-3442-4706

브레게 레인드 네이플 카메오 8958 핸드메이드 카메오
작업을 거쳐 완성된 아름다운 유니크한 다이얼이 돋보이
는 워치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배젤과 케이스에 걸쳐 약
2.42캐럿의 4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배가했
다. 세련된 약어가족 스트랩이 은은한 조화를 이룬다. 1억
3천만원대. 문의 www.breguet.com

에르메스 아스 펄리 룬 머더오브펠, 오판과 자개, 그리고
57개의 다이아몬드로 달과 우주를 표현한 다이얼은 공학적
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직경 38mm의 화이트 골
드 소재의 케이스 배젤에 7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매뉴팩처 무브먼트 H1837로 구동한다. 가격 미팅. 문의
02-542-6622

블기리 다비스 드림 강렬한 컬러의 정스톤으로 완성한 매
종의 상징적인 부채 모티브가 단연 돋보이는 워치. 로즈 골
드 소재의 케이스에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에미시트, 투르말린을 세팅했고, 다이얼에는 머더오브
펠을 더해 여성스러운 느낌을 부여한다. 5천5백60만원.
문의 02-6105-2120. **에디터 윤자영**



timeless Elegance

장인의 고귀한 예술적 터치와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접목해 손목 위에서 빛나는 한 폭의 그림을 선사하는
아티스틱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ANOTHER ELEGANCE

우아한 감성의 주얼리를 제작하는 그래픽에서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번 캠페인은 그래픽의 새로운 얼굴인 모델 리안 판 롬파에(Rianne Van Rompaey)와 함께한다. 사진작가 미카엘 안손(Mikael Jansson)의 렌즈로 담아냈으며, 프랑스 코트 다쥐르(Cote D'azur)에 자리한 역사적인 빌라 라 비지(Villa la Vigie)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라안은 버터플라이, 탠디의 보우, 로렌스 고프 시그나처, 와이덤 플라워 등 그래픽의 주요 컬렉션과 하이 주얼리를 착용했으며, 여유로운 휴양지와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빛나는 그래픽 디자인드만의 특별함과 아름다운 모먼트를 선사한다. 문의 02-2256-6810

전고함의 재해석

파네라이는 1960년대 Ref. 3646 모델에 정착한 전설적인 안젤루스 칼라비에서 영감을 얻은 라디오미르 모델, 라디오미르 귀도 파네라이 & 피콜리오(Radiomir Guido Panerai & Figlio)를 매력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을 출시한다. 이 타임피스는 11월 3일 재팬에서 개최되는 재팬 워치 옥션: XVIII에서 선보이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유네스코 산하의 장부구해위원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단순한 오리지널의 재현을 넘어 파네라이의 유산과 역사를 기념하는 특별한 시계로 슬리드 헬딩 리그, 샌드위치 다이얼, 마리나 일라트리테 로고, 오피스 파네라이 문구, 골드 컬러 핸드, 9시 방향의 스톱 세컨즈, 그리고 동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군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워치를 개선해온 파네라이의 과도기 모델 Ref. 3646의 형태와 미학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7mm 케이스는 플래티넘의 깊은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파네라이 플래티네코™로 제작해 기존 플래티넘보다 더 단단하고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뛰어나다. 문의 1670-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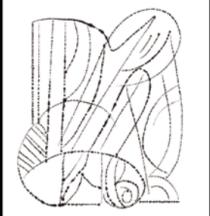


DEFINE: SEOUL



NOVEMBER 1-5, 2023 LAYER 27 & 41 ANDY'S 636

DEFINE: SEOUL



NOVEMBER 1-5, 2023 LAYER 27 & 41 ANDY'S 636

디자인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페어 '디파인 서울'이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에 걸쳐 펼쳐진다. (1, 2일)은 VIP 프리뷰). 디자인(design)과 현대미술(fine art), 두 단어를 조합한 페어의 명칭(DEFINE SEOUL)처럼 '디자인+아트' 페어를 표방한다. 이미 아트 페어를 꾸러하고 있는 ㈜아트부신이 주최하고 일태오 디자인이 총괄 디렉터를 맡은 디파인 서울은 성수동 일대의 여러 전시 공간을 산책하듯 거닐며 즐길 수 있는 경량의 묘미를 제공한다. 레이어 27과 41, 그리고 앤드스 636 등 서울 성수동 스트루디오 공간 세 곳이 그 무대다. 이번 페어의 주요 테마는 '사물의 내면(A Look within Matter)'으로, 다양한 해외 디자인부터 한국과 동양의 해리타지와 미학을 함께 조영한다. 멕시코, 체코, 뉴욕 등에 거점을 둔 갤러리 필라미(Galerie Phila), 이탈리아 출신 부부 디자이너가 창립한 지오파도 & 콤스(Giopalo & Coombes)를 비롯해 멤피스 밀라노(Memphis Milano), 국제갤러리, 화이트스톤, PKM갤러리, 두스갤러리, 탕 컨템포러리 아트 등 다양한 국내외 갤러리와 브랜드가 참가한다. 양태오 총괄 디렉터가 연출한 주제관에서는 나무의 물성을 주목하는 나잠수 박종규 2인전 <아름다운 인고>를 진행한다. 티켓은 프리뷰 전일권 8만원, 1일권 2만5천원, 홈페이지 www.defineseoul.com

COLLECTIBLE DESIGN + FINE ART

찬란하게, 우아하게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 벌써 뷰티업계에서는 홀리데이 컬렉션을 하나둘 출시 중이다. 2023년 플래드보 보퍼의 홀리데이 컬렉션 'Toward the Horizon'은 수중 세계에 살아가는 어주인공이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스토리를 프리미엄 제품과 정교한 패키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미국 출신 아티스트 케이티 로자신(Katie Rodgers)의 손길을 통해 완성했으며, 리미티드 루마니징 페이스 인헌서, 립스틱 2종, 아이 컬러 퀴드, 더 세럼, 클렌징 오일, 소프트닝 클렌징 폼과 함께 브랜드의 아이코닉 아이템 라 크롬으로 구성했다. 입체적인 얼굴 윤곽을 선사하는 동시에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더욱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루마니징 페이스 인헌서 10g 13만5천원. 문의 080-564-7700



MIDNIGHT BLUES

몽블랑의 대표 클래식 워치, 스타 레거시 폴 캄판다가 새로운 미드나이트 블루 다이얼과 교체식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해 새롭게 선보인다.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의 다이얼에는 별 모양의 기요세 패턴을 더해 신비스러운 매력을 배가했으며, 조양형 모양의 4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측면에는 스텔이 있는 직선형 홈을 더하고, 개방형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채택했다. 2022년 출시된 몽블랑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칼라비 MB 24.30을 장착해 캄판다 설정을 더욱 간소화했고, 더 넓은 문페이즈 창과 오일 및 월 창으로 가독성을 높였으며, 5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최대 50m 방수 기능 등 향상된 기능을 제공한다. 문의 1877-5408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털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100% OF PARIS

이번 가을 아스티에르 데 발라트에서 상쾌하고 감미로운 이따리 향을 담은 만트 라 줄리와 스파이스, 미르라, 파출라의 향을 담은 델리, 두 가지 향을 선보인다. 먼저 만트 라 줄리는 좋은 글록감을 따라 가는 아침 선택과 시장 진열대에서 쫓겨오는 것 수확한 상냥한 이따리 향이 허브의 향긋한 내음이 떠오르는 향이다. 민트와 바질, 베르가모트, 여기에 함께 어우러지는 향긋한 생강, 아리비안 재스민까지, 생기 넘치는 향이 오랫동안 피부에 머무른다. 한편 델리는 뿌리는 동시에 신성한 사원에서 스며 나오는 인센스가 머릿속을 스친다. 강렬한 참피카, 관능과 열정이 넘치는 미라리로 시적이며 기운을 담은 스모크한 우디 향의 파출라와 베르베르로 이어지며, 감미로운 향의 장미꽃잎과 페퍼 향의 카디엄, 과일 향의 그린 베르가모트가 더해진다. 문의 02-3446-4322



'레드'에 빠지다

가분 전환을 위한 가을 레드 립.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립스틱 #520 키랄** 모이스처 리프 콤플렉스 선크림을 담아 입술 보호 코팅은 물론 립웨어 포뮬러로 우수한 발색력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3.5g 4만8천원. 문의 02-6971-3203 **샤넬 무주 쿨로 블롬 #158 브라이트** 찬연 왁스와 오일 성분으로 촉촉하고 볼륨감 있는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3g 5만5천원. 문의 080-805-9638 **버버리 뷰티 키세스 리워드 매트 #118 피어어 케디** 글이 둥근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르기 쉬우며, 비건 포뮬러가 땀 없이 컬러가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돕는다. 6ml 5만1천원. 문의 080-850-0708 **조르지오 아라미니 뷰티 립 피어어 매트 #400 트루 레드** 입술 라인에 맞춘 윤반을 붙인 디자인으로 생생하게 바를 수 있으며, 호호바 오일로 보습력을 더했다. 3.1g 5만7천원. 문의 080-022-3332 **포도그래피 화인영** 인턴 에디터 **신정림**



ESSENTIAL WALLET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더한 남자 지갑 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형시 로고가 새겨진 코발트 블루 컬러의 송이거죽 지갑 가격 미정 **자형시**, 문의 02-6905-3630. 포켓형 동전 지갑 1개가 내장된 빈자갑으로 크레 디자인을 더한 바니티 컬러의 송이거죽 소재 바이폴드 월렛 워드 코인 가격 미정 **셀윈스 울프**, 문의 1577-8841.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자형시 블랙 컬러 미아스타스틱 셀렉트 소프트 6cc 지갑 **몽블랑**, 문의 1877-5408. 가죽 소재 카드 슬롯 3개와 지퍼 포켓 1개로 구성된 시그처 DG 패턴 자형시 지갑 6만원 **플레밍기 버나**, 문의 02-3442-6888 **포도그래피 화인영** 인턴 에디터 **신정림**

반지의 여왕

말년의 장인 장사를 담은 주얼리 브랜드 포일라토에서 선보이는 카테네 컬렉션 링은 다양한 크기와 풍성한 볼륨감으로 정평이 난 구르메트 링크를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카테네 링보다 더 크고 견고해졌으며, 큰 사이츠임에도 손가락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 스테이튼먼트 링으로 단독 착용해도 좋으며, 다른 카테네 링과 과감하게 믹스 매치하면 더 유니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까지 세 가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143-9486



INTO THE KIT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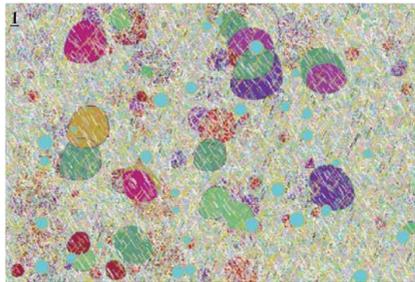
대형의 록에 개성과 재미를 더한 카치한 패션 아이템. (왼쪽부터 차례대로) 클래식한 비게트 뱀에서 영감을 얻은 베이지 컬러의 비게트 피우치 백 1만1천원 **앤디**, 문의 02-544-1925. 미니 조개 모티브와 유리 진주로 장식한 사일 로고가 특징인 메탈 소재의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화려한 모노그램 패턴 테두리와 상단 중앙 및 템플의 크리스탈 로고가 포인트인 아세티트 소재의 일라리아에 스퀘어 신글라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4G 로고 각각된 슬러 메탈 자물쇠 장식을 매치한 데님 스트라크 바이커 앵클볼 가격 미정 **자형시**, 문의 02-546-2790 **포도그래피 화인영** 인턴 에디터 **신정림**



타이베이 비엔날레(Taipei Biennial) 2023_〈Small World〉

우리 안에 생동하는 음울

하나의 도시를 지역적인 동시에 글로벌 맥락에서 볼 때 2년마다 치러지는 국제 미술제인 비엔날레를 경험해보는 건 꽤 많은 여행법일 수 있다. 여행 후보지로 점찍은 도시에서 마침 비엔날레가 열리는 시기라면 일정을 조율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물론 '미술계 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반영하듯 도시마다 앳다튀 나서는 탓에 불거진 비엔날레 과잉 현상에 절로 눈이 찌푸러지기도 하고, 진부한 기획과 대동소이하게 느껴지는 구성에 더러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얻기도 한다. 풍성한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지닌 대만의 타이베이. 이 도시에서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비엔날레가 개최된다. 여러 곳에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한 미술관을 전시 무대 삼고 '음악을 주요 매개로 해서 펼쳐질 타이베이 비엔날레 2023의 존재감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요즘 세계 유수 도시가 가변 근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의 풍경은 이따금씩 인파로 가득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적댄다. 인기 만점 전시는 길게 줄을 서다 못해 여러 겹으로 파리를 틀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중성은 갖추게 되었지만 실험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곧잘 받기도 한다.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관통하는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미술계의 장으로 여겨지는 비엔날레도 마찬가지로. 손에 쥘 예산을 놓칠세라 세금으로 출혈 경쟁을 한다는 눈총을 받는, 역사도 체계도 부족한 '무늬만 비엔날레'가 은근히 많다. 하지만 엄연히 미술품을 거래하는 상업 장터인 아트 페어와 달리 비엔날레는 여전히 진지한 사명과 그에 걸맞은 무게감을 지닌 다수를 위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술가들과 더불어 전시의 예술이라 여겨지기도 하는 창조 활동을 하는 '전시 기획자(큐레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인제와 협업의 장을 펼치는 무대이자, 시민을 초대하는 도시의 축제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중순 막을 올리는 타이베이 비엔날레(2023. 11. 18~2024. 3. 24)는 주제와 접근 방식, 구성 등을 볼 때 이 도시의 체류자나 여행자에게 흥미로운 제안과 경험을 선사하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뮤직 룸과 '시네마 하우스'로 동시대와 공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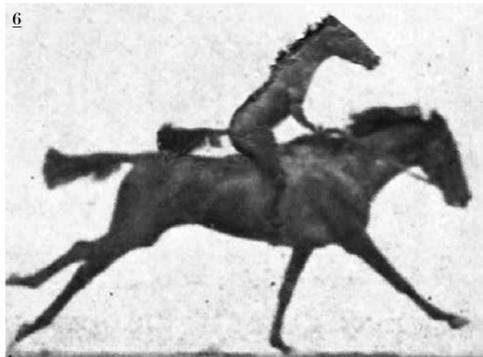
타이베이 비엔날레 2023의 전시 제목은 '스몰 월드(Small World)'.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신중하게 내린 'small'이라는

단어에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인류가 겪어낸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서로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의미에서, 반대로 격리의 위협으로 사회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졌다는 의미에서 '세상은 작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가능성과 위협이 공존하는 딜레마의 세상이다. 서로가 밀착적으로 연결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질 수도 없는 '유예된 상태'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고 나아갈 수 있을까? 다수의 국제전과 전시를 기획해온 프레이 차(Freya Chou),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에디터이자 작가 브라이언 쿠안 우드(Brian Kuan Wood), 연구자이자 큐레이터 림 샤디드(Reem Shadid)가 문체 전시 감독을 맡은 타이베이 비엔날레는 이렇게 질문하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일상의 딜레마를 마주하고 그 실타래를 풀어보고자 고민하고 저항하고 신명 나게 몸부림칠 수도 있는 장을 선사한다. 1998년부터 비엔날레를 주최해온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TFAM) 3개 층에 걸쳐 전시를 펼치며, 중심 매개체로 '음악이 자리한다. 프레이 차는 "음악과 음악에 다가가는 여러 방식은 비엔날레에서 다루는 이슈를 생각해보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portal)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미술관 공간을 '뮤직 룸(Music Room)'으로 변모시켰다고 말했다. 감상은 물론 연주, 청음, 퍼포먼스 등 여러 프로그램이 비엔날레 기간 내내 풍부하게 전개될 뮤직 룸은 관객이 듣고, 흡수하고, 즉석에서 발산하면서 긴장과 부조리한 요소들로 점철된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명제를 인식하고 사유해볼 수 있는 다층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의 플랫폼이다. 또 매일 선정된 영상 감상을 할 수 있는 '시네마 하우스'도 마련돼 있다.

초청 작가 명단에는 50여 명의 다국적 현대미술가·뮤지션이 올라 있다. 피오 아바드(Pio Abad, 런던), 재클린 키요미 고르크(Jacqueline Kiyomi Gork, 로스앤젤레스),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Natascha Sadr Haghghighian, 베이루트/테헤란), 디제이 스니프프(dj sniff, 로스앤젤레스/도쿄) 등 다국적 예술가들을 비롯해 라이 치 쉹(Lai Chih Sheng), 리 이 판(Li Yi Fan), 양 치-추안(Yang Chi-Chuan) 같은 타이베이 현지 작가들은 저마다의 신작으로 주제전에 참여한



다. 특히 눈에 띄는 이름 중에는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87세 작가 사미아 할라비(Samia Halaby)가 있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할라비는 서정미 어린 추상회화로 유명한데, 이번 비엔날레에서 컴퓨터 작업을 기반으로 한 키네틱 페인팅 작업을 활용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몸소 보여줄 예정이다. 한국 작가로는 현재 리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인 동시대를 대표하는 김범 작가와 카네기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전에 선보이는 등 최근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유연 작가가 초청됐다. 마음만은 벌써 타이베이로 달려간다. 글 고성연



1 사미아 할라비(Samia Halaby), 'Rain', 1992/2019, kinetic painting, 6 min 32 sec.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eir-Semler Gallery, Beirut / Hamburg. 2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Taipei Fine Arts Museum, TFAM)에서 오는 11월 18일 개막하는 타이베이 비엔날레 2023 포스터. 3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Natascha Sadr Haghghighian), 'Watershed', 2023, sound installation, PVC sculptures and transducers, dimensions variable (6 pieces). Commissioned by Taipei Biennia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Photo by Max Schneider. 4 아서 오(Arthur O), 'Viewfinder(Emmanuelle)', 2021, gelatin silver print, 35.56 x 27.94cm. Courtesy of the artist. 5 양 치-추안(Yang Chi-Chuan), 'Your tears remind me to cry', 2023, sound installation, ceramic, clay, color powder, underglaze color, stainless steel, chain, electronics, dimensions variable, 20 minutes. Commissioned by Taipei Biennial 2023. Courtesy of the artist. 6 김범, 'Horse Riding Horse(Alter Eadward Muybridge)', 2008, Single-channel video, 24 sec, loop.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ipei Fine Arts Museum. 7, 8 김범, 'Spectacle', 2010, Single-channel video, 1 min 7 sec, loop. Courtesy of the artist and Taipei Fine Arts Museum. 현재 진행 중인 리움미술관 개인전에도 선보인 작품.



Interview with_ 양유연(Yooyun Yang)_TB 2023 초청 작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불안과 고독에 대하여

국내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양유연(b. 1985) 작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작년에 개최된 제58회 카네기 인터내셔널이다. 카네기 인터내셔널은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최장의 역사를 지닌 국제 전시로 3~4년마다 피츠버그의 카네기 미술관에서 진행된다. 2018년에 열린 제57회 카네기 인터내셔널에는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과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가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목된 흰색 옷가지로 보이는 무언가, 구멍에서 새어 나오는 듯한 빛이 내리찍는 풍경, 확대되어 나타난 팔과 손 등으로 이루어진 모호하고 신비로운 양유연의 이미지에 많은 이들이 매료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해외 갤러리의 러브콜이 갑작스레 몰려들면서 작가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첫 개인전을 포함해 해마다 세 차례 개인전을 치렀다. 서울 부암동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로스앤젤레스 나이트 갤러리, 전속 계약을 체결한 런던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개인전, 그리고 프리즈 서울까지. 잠깐 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11월 중순 개막하는 타이베이 비엔날레를 앞두고 있는 양유연 작가를 만났다.



1 양유연, '환상(2012)', 장지에 아크릴, 97 x 130cm. Courtesy the artist and Stephen Friedman Gallery. 2 양유연, 'Point(12015)', 장지에 아크릴, 45 x 45cm. Courtesy the artist and Stephen Friedman Gallery.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에 관심을 두었던 시가 작가인 양유연은 타이베이 비엔날레 2023에는 '환상(2012)', 'Point(12015)' 등 비교적 초기 작업을 포함해 총 4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3 지난여름 런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Passing Time(2023. 6. 1~7. 22)'에서는 제58회 카네기 인터내셔널에서 선보인 'Memory(2021)' 외 9점의 작품도 전시했다. Photo by Mark Blower. Courtesy the artist and Stephen Friedman Gallery. 4 지난 9월 초 열린 프리즈 서울 2023에 참가한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부스에 선보인 양유연의 회화 작업 '불안(2023)', 나무 판에 올린 수제 장지에 아크릴, 53 x 65.2cm. Photo by 김민우 5 서울 부암동에 자리한 한때 리움 공간 '프라이머리 프랙티스'에서 열린 양유연 개인전 '그 사이에서 빛난 후'(2023. 8. 11~9. 23) 전시 모습. Photo by CJY ART STUDIO. Courtesy the artist and Primary Practice.

흔들리는 순간들이 빛어내는 자메부

올해 타이베이 비엔날레의 주제인 'Small World'와 양유연 작가의 작업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사회라는 커다란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형성되는 개인의 '작은 세상'은 그간 작가가 꾸준히 다뤄온 '불안의 시대와 맞닿아 있는 소재' 아니던가. 양유연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을 법한 고독과 불안의 정서를 차분하고 절제된 페인팅으로 담아낸다. 작가에 의해 여과됨으로써 서늘한 정수(淸澗)만 남은 감정은 주변의 인물 혹은 사물의 모습을 빌려 표현되어, 익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자메부(jamais vu, 未視感)의 풍경을 선사한다. 장소성이 제거된 공간, 흐릿하고 불분명한 경계, 흠집이 난 건물, 명확하지 않은 물체, 흔들리는 눈동자... 그림 속 대상은 한결같이 불안정한 형태이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띤다. 어떤 찰나를 포착한 듯한 이미지에서 상황의 진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익숙한 대상을 담담하게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은 어딘가 비뚤어진 각도와 흔들린 초점을 취한다. 대부분은 작가가 촬영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주변 풍경, 지인의 사진을 크롭하고 확대해 그린 그림이지만, 이들을 알아 보기가 쉽지 않다. "인물을 그릴 때 의식적으로 대상을 담지 않게 그려요. 인물이 누구인지보다 그가 어떠한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 정서가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거든요. 사실 초창기부터 자화상을 꾸준히 그려왔

는데, 그때 완성한 작업에서는 제 얼굴이 좀 더 잘 보이는 반면 지금은 의명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같은 방식이 어도 초창기엔 묘사에 더 집중했다면, 지금은 왜 이 이미지를 그림 주제로 선택했는지 계속 고민하며 작업해요. 이처럼 개념이 달라지니 결과물도 달라지더라고요." 열은 안개가 낀 듯 모호하고 불안한 공기가 감도는 고유의 질감은 동양화의 전통 재료인 장지와 아크릴의 조합에서 비롯되었다. 물감이 은은하게 종이에 흡수되도록 하는 장지는 서서히 퍼져가는 빛과 어둠의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한번 손댄 붓 자국은 수정이 어렵고, 고스란히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겹의 색깔층을 쌓아나가면서도 탁해지지 않도록 작가가 선택한 재료는 아크릴이다. "완재 전통 분체를 사용했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온전히 아크릴물감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분체는 가루 안료라 점착적으로 아교를 계속 섞어야 하는데, 아교 비중이 높아지면 그림이 점점 뽀뽀해져요. 발색이나 결과물을 보았을 때 아크릴이 더 적합하다고 느껴졌어요." 아크릴 특유의 고무 재질과 광택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많은 양의 물을 섞어 아주 연한 농도로 희석해 칠하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고 부드러운 표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빛을 뿜어내는 유희와 달리 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고 차분한 질감은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절했다. 한번 물감을 올리고 나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연한 물감의 층이 쌓여가며 밀도를 더하는 과정은 오

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순간의 감정이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와 닮았다. "표면이 매끈하고 빛나게 표현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특히 빛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단순히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라기보다는 같은 빛과 그림자에도 각각의 발색과 투명도, 대비감을 섬세하게 계산하면서 작업하려고 해요." 작가는 이를 '색을 덧칠해나가는 과정'에서 '색을 찾아내려는 노력'으로의 변화라 말한다. 때로는 섬세하게 대상을 이루만지는 유약한 빛줄기, 때로는 강렬하게 대상을 가리거나 비추는 극적인 연출로. 자유자재로 빛의 강도를 조절하며 완성된 그림은 더욱 명상적으로 다가온다.

올 들어 여러 전시를 동시에 준비하며 힘든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몇몇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비엔날레 출품작은 구작 위주로 구성되어 아쉬움 대신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타이베이 비엔날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양유연의 작품은 최근의 작업과 결을 같이하는 '검열(2021)'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작업으로, 개인적 감정보다 자신이 속한 사회·정치적 환경에 조금 더 집중한 시기였다. 무너져가는 건물을 짓누르는 커다란 구체나 침침에 걸려 있는 비현실적인 크기의 달처럼,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풍경화로 보다 직접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내고자 했다. "최근 세 번의 전시에서 감정적인 뉴앙스의 인물화를 주로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조금 다른 성향의 작업을 해외에서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작 본인은 전시 준비로 작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아직은 별다른 변화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양유연. 갤러리와 계약도, 해외 전시도, 모든 게 새롭기에 그저 계속 배우는 중이라는 수줍고도 담담한 소회를 밝히는 그녀가 앞으로 작업을 통해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깊은 울림을 선사하리라 기대한다. 글 김민우



Exhibition in Focus

지난 9월 서울을 휘몰아쳤던 키아프 X 프리즈 아트 주간이 주춤해지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와도 갤러리와 미술관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전시 풍경은 여전히 손짓을 한다. 한결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기에 외려 전시 관람에는 좋은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9월 미술 주간에 미처 보지 못했거나 여유롭게 재관람하고 싶은 전시, 그새 손바뀜이 일어나 새롭게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전시도 있다. 그중 이 가을, 혹여라도 놓치면 아쉬울 법한, 우리를 둘러싼 사물과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주는, 심지어 관람 동선이 효율적이기도 한 서울 한남동 일대의 전시를 소개한다. 설령 마지막 날이더라도, 유일무이한 시공간을 수놓는 전시의 미학을 체감한다면 미술 산책의 의미를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김범 (바위가 되는 법)展 리움미술관

다국적 방문객이 서울을 찾은 프리즈 서울 2023 기간에 리움미술관에서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김범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을 개최했다는 점은 호뭇한 타이밍의 예가 아니었을까. 예술가들의 예술가로 꼽히는 김범(b. 1963)의 전시는 13년 만에 열린 개인전으로 1990년대에서 2010년대 중반을 이루는 초기 회화, 대표 설치 연작, 최근 디자인 프로젝트까지 7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벽을 채운 커다란 스크린으로 시선을 잡아끄는 '볼거리(Spectacle)'는 1분 7초짜리 단채널 영상 작업인데, 기만히 보노라면 파식 웃음이 나온다. 이성동물 다류 같은 영상에서 영감이 차타를 속도 감 있게 쫓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는 11월 중순 시작되는 타이베이 비엔날레에 출품되기도 한 이 작품은 포식자와 피식자, 강자와 약자의 뒤집어진 관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당연시하는 상대적 위상을 잠시라도 곱씹게 만든다. '풍경'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이미지 대신 파란 하늘, 나무, 강을 바라보라는 손글씨만 넣은 회화로 새로운 회화적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든지, 조선시대의 귀한 청화백자를 소재로 해 언뜻 할아리 같지만 종이 찢힘으로 형태를 만들고 불펜으로 용 대신 스피노사우루스를 그려 넣은 영동한 모조품 등 깨달 같은 재미를 준다. 김범의 작업 세계 전에는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무심코 받아들여지는 상식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담도 소박한 표현법과 담담한 유머로 관람객의 긴장을 풀어주는 매력 있다.

전시명 김범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 전시 장소 리움미술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전시 기간 2023년 12월 3일까지 홈페이지 www.leeum.org



1 김범, '한편 열쇠(2001)', 캔버스에 아크릴, 22 x 33.5cm. 2 김범, '풍경 #1(1995)'. 3 김범, '백조(2004)', 스테인볼, 모타, 프로펠러, 무선 수신기, 목재, 72 x 79 x 31cm. 개인 소장. 4 김범, '두려움 없는 두려움(1991)', 종이 에크로, 연필, 7번 크기. ※1~4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리암 길릭(Liam Gillick) <The Alterants(변화의 주역들)>展 갤러리바톤

대개 작가의 커리어를 이루거나 중요한 시기의 작업 세계를 심도 있게, 그리고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미술관 기획전과 달리 화이트 큐브 공간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상업 화랑, 그라.까 갤러리의 전시가 흥미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 관심을 가져온 작가의 신작을 접할 때도 그렇다. 영국 출신의 작가 리암 길릭(Liam Gillick, b. 1964)은 갤러리바톤과의 세 번째 개인전인 (The Alterants(변화의 주역들))에서 이미로 연속으로 이어질 작업의 시적이 될 신작을 처음 선보였다. 아저림도록 행하게 백색평을 발하는 라이팅 부조 작품 옆에 말풍선 속 수수께끼 같은 그래픽 기호가 나타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 세트가 갤러리바톤의 주 전시장 곳곳에 차차하고 있는 데일링션 속 기호는 다 타다라, 여전히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단순하면서 매력적인 비주얼이지만 단번에 의도를 알리기에는 이르른 구성이다. 작가의 긴 설명을 압축해보자면 변화의 물결이 닥친 포스트 산업 시대에 걸맞은 시간화된 새로운 기호 체계를 모색하면서 시도한 새로운 주상이다. 라이팅 부조는 경량 알루미늄(슬롯과 후면에 숨겨진 LED 라이트를 결합한, 산업적 재료를 만든 구조체로서 시, 바이오메디컬, 가시현실, 반도체 등 포스트 산업 시대의 새롭게 도래하고 있음에 대한 표적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한다. 이 구조체와 이호하는 말풍선 속 그래픽 기호는 거의 한 세기 전에 고안된 아이소타입(Isotype)을 바탕으로 작가가 새롭게 만들어냈다. 아이소타입은 복잡한 통계 정보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고안한 인포그래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화법과 방식으로 새로운 추상을 행해나가는 리암 길릭을 보면 도널드 저드와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전시명 리암 길릭(Liam Gillick) 개인전 (변화의 주역들(The Alterants)) 전시 장소 갤러리바톤(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6)
전시 기간 2023년 11월 11일까지 홈페이지 www.gallerybaton.com

1,2 리암 길릭(Liam Gillick) 개인전 (변화의 주역들(The Alterants)) 설치 모습. Courtesy of Gallery Baton.
3 갤러리바톤에서의 개인전 프리뷰 행사를 위해 서울을 찾은 리암 길릭. Photo by 고성연

#도널드 저드(Donald Judd) 개인전 _타테우스 로파 서울

오늘날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미니멀리즘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작가는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다. 미술 애호가도 아닌데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웬만한 해외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미술관에 가면 저드의 작품을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저드는 전통적인 화가로 출발했지만 형태, 색, 재질, 공간을 둘러싼 요소들 등 오브제의 물성(物性) 자체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면서 캔버스 위에서 작업하며 경쾌한 회화적 관습에서 탈피했고 빈 공간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 도록에 실린 글을 보면, 1963년 저드가 개인전을 열었을 때 그의 작업은 이미 '상자들', '배열' 같은 개념적, 분석적, 수학적 어휘로 이뤄져 있었다고 한다(유진성). 그리고 1966년 뉴욕 유대인 미술관에서 열린, 예술의 편을 흔든 중요한 역사적 전시에서 무제의 박스 형태 작품들을 선보였다. 정작 자신은 미니멀 아티스트로 한정되는 걸 거부했고, 커리어 후반부에는 뉴욕의 미술 생태계에 영감이 나 황량한 풍경이 펼쳐진 텍사스 사부의 외딴 마을 마피(Marfa)로 이주해 여생을 보냈다. 도널드 저드 재단을 이끄는 그의 아들이자 예술 감독 클라리 저드는 이번 개인전 기획을 맡았는데, 직접 쓴 전시 도록의 서문에서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모두 의도'라라는 그리스 철학자의 말로 시작했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저드의 작업 세계에 초점이 된 보기 드문 회화 작품을 3차원 작업과 함께 소개하고, 1991년 개관한 20점의 목판화 세트를 우리-리에서는 처음 선보였다. 목판화 세트는 10대 후반 주한 미군 공병으로 근무해 한국과의 인연이 남달랐던 저드가 판화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던 재료인 한지에 찍어낸 작품들이다. 이 세트가 유난히 길게 뻗은 갤러리 공간에 걸린 모습을 본다면 한치의 물성에 매료됐고 그토록 '공간'을 중시한 완벽주의의 메이커 저드가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해한다.

전시명 도널드 저드 개인전 전시 장소 타테우스 로파 서울(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 전시 기간 2023년 11월 4일까지 홈페이지 <https://ropac.net>

1 도널드 저드(Donald Judd), Untitled(1988), anodized aluminum with yellow plexiglass. 타테우스 로파 서울에서 진행 중인 도널드 저드 개인전에 선보인 작품.
2,3 도널드 저드 개인전 전시 모습. 타테우스 로파, 서울 2023년 9월 4일~11월 4일.
3번 작품은 한자를 바탕으로 한 목판화 20개 세트(1982~1993/2020). ※ 2, 3 이미지 Courtesy Theaddeus Ropac gallery, London - Paris - Salzburg - Seoul Donald Judd Art © Judd Foundation/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Photo by artfacts



(위부터 차례대로) 부활절 리틀의 대담한 컬러링 디자인의 18K 옐로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중앙에는 4.09카럿 시아이어 1개를 매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그 주위에 총 0.95카럿, 1백38개의 리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1억3천여만 원대, 문의 02-6905-3490 **티사 키 벨렌스 클러스** 골드빛을 띠는 남양주주와 다이아몬드 이루어진 모던한 디자인이지만 불꽃 같은 심 루엠티 신비롭고 화려한 느낌을 선사하는 링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부활절 리틀 리즈에 아 쿠이마인 다이아몬드** 솔라이어 스타일로 스타일링하고 긴장한 매력에 톤보하는 디자인. 중앙에 13.07캐럿 에메랄드 컷 아쿠아마린을 세팅하고, 그 주위에 총 1.03캐럿, 42개의 다이아몬드 블랙 라파르 마무리했다. 5천여만 원대, 문의 02-3467-8334 **프렌드 핸드 워드 리틀 리틀**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링 가운데 옐로 골드를 기원 카보숑 컷 라즐라를 세팅해 강렬한 인パクト를 부여한다. 1천여만 원대, 문의 02-514-3721 **타피나 타피나 트루** 그래픽적인 T 셰이프의 18K 옐로 골드 밴드에 2캐럿의 핑키 옐로 쿠션 모파이드 다이아몬드를 걸음하게 세팅해 모던한 감성을 부여하는 솔라이어 스타일의 워딩 링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다들 파인유얼리 디오레트** 핑크 골드 소재에 절라플란 레카로 다양한 꽃과 무늬를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했다. 중앙의 꽃 위에는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우아한 감성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빈들리프 아베 빈티지 알렉산드라 리버사**를 기묘세 장식을 기원한 18K 골드 소재의 페이츠와 카블라진 원석으로 이루어진 네 인클로버 모티브를 둘러싸며 착용 가능한 라바사를 방식의 링 7백여만 원, 문의 1877-4128 **포플라로 누도 엑시 다이아몬드 솔라이어** 순수한 화려함을 담은 누도 솔라이어 칼라베르 파스르 18K 로즈 골드 및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2.18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고 화려한 감성을 전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그라피 스킵 칼라베르** 화이트 골드 소재에 1.28캐럿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 주위에 멀티 셰이퍼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한층 더 우아한 꽃을 연상시키는 링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에디터 **성정민**

Big Face

빅 스톤과 다이아몬드로 확실한 존재감을 선사하는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2023 F/W 여성 패션쇼 컬렉션의 백으로 100% 카프 스킨 소재라 부드러우며 V자 메탈 패스닝이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한다. 버클에는 메달로 장식한 체인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탈착식 슬더 스트랩을 제공해 실용성을 겸비한 미니 벨라 백 2백98만원
에트로, 문의 02-3446-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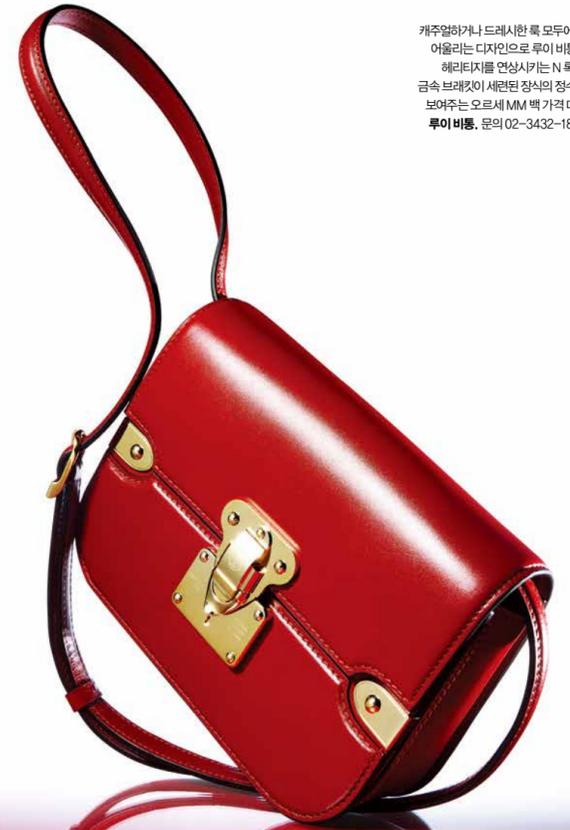
(위부터 차례대로) 연인, 친구, 가족 등 소중한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연걸 고리에서 영감받았으며, 18K 로즈 골드 총 0.86캐럿, 1백15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투게더 컬렉션 브레이슬릿, 18K 로즈 플레이트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95캐럿, 1백2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투게더 컬렉션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포엘라로**, 문의 02-3143-9486, 18K 로즈 골드 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6개를 간헐적으로 세팅해 모던한 감성을 부여하는 티파니 락 다이아몬드 엑센트 밴글, 18K 로즈 골드 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한 티파니 락 풀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티파니의 시그니처 모티브인 자물쇠에서 영감받은 락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한 밴글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02-6250-8620



화사하게 빛나는 컬러풀한 젬스톤의 매력에 톤보이는 미모사 컬렉션으로 모던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녹여냈다. 다양한 스톤과 카팅 기법을 이용해 미모사 플라워를 정교하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 센터에 1.17캐럿 루비를 세팅하고 그 주위로 0.9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다이애나**, 문의 02-515-1924



캐주얼하거나 드레시한 룩 모두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루이비통의 헤리티지를 연상시키는 N 록 및 금속 브래킷이 세련된 장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오르세 MM 백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Get the List

소중한 이들을 위한 연말 선물을 계획 중이라면 조금 더 서둘러보는 것은 어떨지. 뷰티 브랜드에서 출시한 특별한 홀리데이 컬렉션 패키지 제품부터 연말에 어울리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주얼리와 워치,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인 브랜드 아이코닉 백과 남성들을 위한 스포츠 워치까지, 곧 다가올 시즌에 참고하면 좋을 프리 홀리데이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yi joo hyuk

우아한 바건디 컬러의 브리시 오프 가죽과 유려한 곡선으로 여성스러우면서도 플랫폼 스타일의 아웃솔로 에너제틱한 느낌을 주는 H-스트라이프 헬시 부츠. 신축성 높은 재질로 신고 벗기 편하며, 초경량 아웃솔로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96만원 **호간**, 문의 02-3479-1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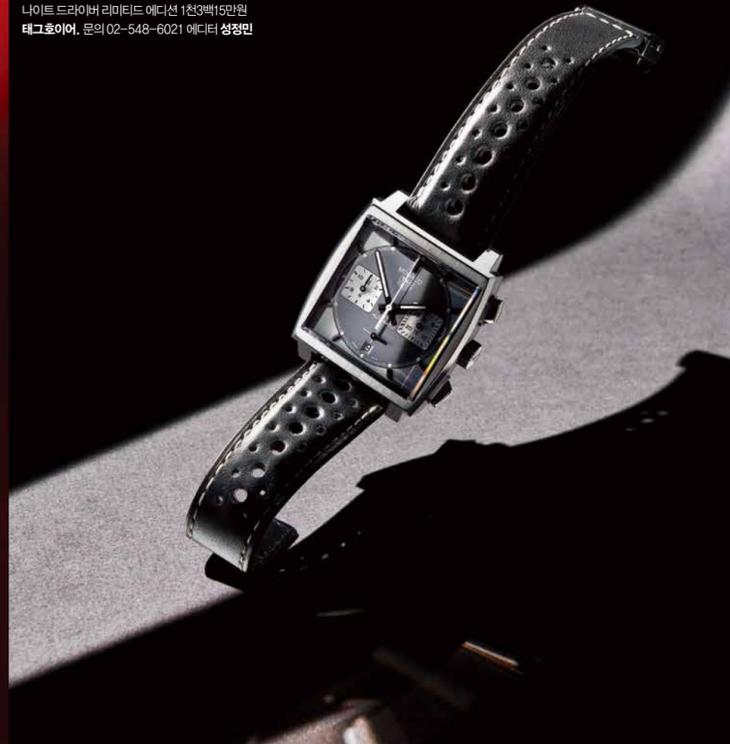


(왼쪽부터) 지름 25mm 스텝 케이스에 다이얼과 브레이슬릿에까지 새틴 패턴을 넣어 패션 하우스의 감성을 불어넣었다. 12시 방향에 로고를 배치해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부여한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라 디마이디올 가격 미정 **디올 타일피스**, 문의 02-3280-0104. 특별한 감성을 부여하는 리본 모티브를 다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총 5.7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블랙 새틴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한 매력을 지니는 탤디의 보우 다이아몬드 워치 가격 미정 **그라프**, 문의 02-2256-6810

베스트셀러이자 시그니처 제품인 얼티뮤 파워 인뮤징 컨센트레이트 세럼이 홀리데이를 맞아 새로운 패키지로 재탄생했다. 도쿄 간자 특유의 모던한 감성과 홀리데이 축제 분위기를 담은 디자인이 돋보인다. 혁신적인 뉴 이뮤제너레이티브(Imm.GenerationRED) 테크놀로지™ 피부 열행 개선용 도와 피부 끝까지 영양 성분을 전달해 활력 에너지를 빠르게 끌어올린다. 75ml 18만15천원대 **시세이도**, 문의 080-564-7700



레이싱 정신을 모던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직경 39mm의 고유한 사각형 케이스에 투피스 다이얼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얼 중앙에 그레이 컬러 다이얼을 배치했으며, 밑에는 그레이 컬러 외 슈퍼루미노바를 적용한 부분이 야광 블루 컬러로 변해 가독성을 높인다. 오토메틱 무브먼트 칼리버 호이어 02로 구동하는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나이트 드라이버 리미티드 에디션 1천3백15만원 **태그홀이어**, 문의 02-548-6021 **에디터 성장민**



황혼에서 새벽까지, 슈퍼 SUV로



달랠하기 그지없는 스피드와 기쁨을 쫓아 가는 사운드, 거기에 마치 움직이는 호텔 같은 이국함. 슈퍼 SUV를 선택하는 이유 아닐까. 질주에 특화된 슈퍼카의 세계에서 2인승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건 '뉴스가 아니다. 페라리부터 람보르기니 등의 슈퍼카 브랜드들이 '슈퍼 SUV'를 선보이는 요즘, 운전자의 성별과 폭도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 카레이싱을 즐기는 기분이 들면서도 패밀리 카로 활용할 수 있는 슈퍼 SUV가 꽃을 활짝 피우는 느낌이다. 모든 주행 환경에 맞는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니, 번덕스러운 취향을 지닌 운전자에게도 센스 있고 묵묵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슈퍼 SUV의 존재감은 한층 더 경쾌하게 다가온다.

일상에서의 유용성이 뛰어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도 스포츠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슈퍼 SUV의 '일상' 매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슈퍼카답게 단단한 하체를 느낄 수 있지만 시스템 조절에 따라 세시 높이 등이 바뀌며 주행 모드에 적합한 세팅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갈수록 눈에 띈다. 모드에 따라 편안한 승차감을 누릴 수도 있고, 고속 성능과 안정적인 코너링까지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드를 즐길 수 있다. 500~700마력을 내면서 서스펜션의 고급화가 기본이 되는 SUV이다 보니, 과정을 좀 보태지면 이국적인 집 같은 공간에서 카레이싱을 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다.

영국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애스턴마틴은 고성능 4도어 SUV DBX707을 국내 시장에 내놓았다. 최고 속도 시속 310km, 최고 출력 707마력, 최대 토크 91.7kgm, 0-100km 가속 시간 3.3초라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 DBX707은 파워와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내세우는데, 이를 주체로 한 광고 영상도 인상적이다. 질주하는 애스턴마틴 DBX707을 타던 여성 모델이 차에서 내려 내레이션을 시작한다. 피우는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남의 영향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도 피우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럭셔리 의 궁극을 지향하는 브랜드 비전을 차의 움직임과 상반되는 조화로운 태도로 영화처럼 서사적으로 보여준다. 여성 고객을 강조하고 나선 정도 주목된다. DBX707이 다양한 취향을 지닌 여성 고객을 위한 럭셔리 특성을 강화하고 비스포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애스턴마틴 고유의 스포츠 드라이빙 성능은 오롯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럽 하우스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인적 드문 남도의 구도 드라이브 모두 즐겁게 상쾌해할 수 있다.

실제로 DBX707은 스포츠카 수준의 드라이브 경험을 선사한다. 9단 자동변속기가 제공하는 효율성과 정교함은 유지하면서도 저전기 가속력과 기어 내 응답성을 최적화하고, 전자식 동력형 토크 컨트롤 시스템도 갖췄다. GT 스포츠와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기능을 지원한다. 또 시뮬레이션 변화와 작동 시 적용되는 능동형 로직 시스템은 구동계와 ESP 시스템을 더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해 강력한 스포츠카 같은 운전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스포츠 테마로 꾸민 실내 분위기는 웅장하고 경쾌하다. 가족의 마감 시야를 거부하는 스티치에서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고, 천장을 감싸는 알티트라 소재도 근사하다.

럭셔리 4도어 SUV의 무한 변신

람보르기니는 브랜드 역사상 두 번째 SUV인 '우루스'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우루스 퍼포먼트(Urus Performante)'를 출시했다. SUV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은 탄소섬유 부품으로 슈퍼 스포츠 DNA를 강조했다. 엔진을 둘러싼 보닛과 프론트 범퍼, 스텔리아가 좋은 예다. 람보르기니 센터 스트라이프 디자인 부서 책임자 미차 보카트는 "공기역학적 장점을 완벽하게 통합하고 광범위하게 탄소섬유를 적용해 '퍼포먼트' 헤리티지를 상기시키는 등 개성 있는 운전자 중심의 슈퍼 SUV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엔진은 V8 트윈 터보로 이전 모델보다 16마력 상승한 최고 출력 666마력, 최대 토크 86.7kgm을 뽐낸다. 여기에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 3.3초, 최고 속도 시속 306km의 고성능을 자랑한다. 주행 환경에 맞는 드라이브 모드를 고를 수도 있는데, 스티리아에서는 고급스러운 승차감, 코르세에서는 고속 안정성과 안정적인 코너링을 느낄 수 있다. '우루스 퍼포먼트'는 가벼우면서도 연이된 운동선수와 같다. 근육질 외관, 특색 있는 디자인, V8 트윈 터보 엔진과 스포츠 배기 장치 덕분에 포장도로나 서킷은 물론 그치지 않은 노면에서도 시끄러움과 안정성을 운전의 경향할 수 있다. 페라리는 역사상 최초의 4도어 4인승 차량 '푸로산게'를 공개했다. 외관은 매우 정교하게 조각하되 불꽃을 남기는 스포츠카 같다. 성능과 운전의 즐거움,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어 페라리의 DNA를 응축한 차, 그래서 이름도 이탈리아어로 '순종(thoroughbred)'을 의미한다는 게 재미있다. '눈은 도로에, 손은 스티어링 휠에'라는 페라리만의 철학은 푸로산게에도 적용된다. 주행 모드뿐만 아니라 와이퍼와 방향 지시등, 클락슨까지 스티어링 휠에서 모두 조작할 수 있다. 실내에는 열선과 풍은 4개의 전동 시트를 분리해 배치했다. 앞좌석은 3단계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마사지 기능이 갖췄다. 실내엔 10개의 에어백을 숨겼다. V12 6.5L 자연 흡기 엔진을 장착했는데, 낮은 회전수에서도 80%의 토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고 출력은 725마력, 0-100km 가속 시간은 3.3초다. 페라리는 럭셔리한 속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았다. 페라리 루프 라이닝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컷넷은 바다에서 수거된 어망을 재활용한 폴리미드도 만들었다. 알티트라 역시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든 소재다. 글 **김수진** 퍼포먼스 에디터, **다들빈** CD

1 애스턴마틴 DBX707은 스포츠카 정채를 고스란히 담은 럭셔리 SUV다. 차는 가벼워진 막강 달리기 사자처럼 애스턴마틴의 고유한 스포츠 드라이빙을 평범하게 느낄 수 있다. 실내 이름 다듬고 공기역학 성능 모두 개편된 진보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2 디스크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다양한 색상과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애스턴마틴 DBX707, 스포츠 테마를 강조하는 스포츠 시트는 경쾌해 보이며, 머리 받침에는 브랜드 로고를 각인해 장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3 애스턴마틴 DBX707은 군더차기 없는 차체 라인과 함께 실내에도 균형 있는 비율을 유지한다. 4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먼트는 차체의 모든 각도가 매달고 역동적인 SUV 모델이다. 5 차체 색상과 대조되는 검은색 도어 핸들부터 검은색 알티트라 가죽 스티어링 휠까지 메트릭 검은색으로 재처리된 우루스 퍼포먼트. 색상부터 소재는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다. 6 페라리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4도어 4인승 차량 '푸로산게'의 실내 공간은 대다수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 루프 비율을 광범위하게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작업 덕분이다. 7 페라리 '푸로산게'는 마치 상부 부품이 할 일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감성적인 물결 모양으로 디자인했다. 전체적으로 풍부한 볼륨감을 지녔지만 차체의 높이는 덕분에 민첩해 보인다.



1 브라운 카프 스킨 레더 스트랩의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스프린트 X 포르쉐 골드 에디션. 2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스텔리아 다윈 글라스박스 시타이어 케이스 백. 3 플랜지해 생생하게 장식한 포르쉐 로고와 크로노스프린트. 4 블랙 카프 스킨 레더 스트랩의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스프린트 X 포르쉐 스틸 에디션. 5 포르쉐의 아이콘인 대시보드 모티브인 다이얼.

The Great Reunion

완벽에 가까운 정밀성, 철저한 장인 정신,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의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스프린트 X 포르쉐가 위치메이킹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유구한 역사와 고품질을 위한 소신, 혁신을 위한 도전 정신, 그리고 일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두 거장, 포르쉐와 태그호이어가 만나 새로운 에디션에 공개한다. 두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한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스프린트 X 포르쉐를 선보이면서 그들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뉴 위치는 태그호이어 까레라 컬렉션과 포르쉐 911(기존 901)의 역사적인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랜드마크 모티브를 더욱 특별하다. 1초 만에 100km/h에 도달했던 오리지널 포르쉐 901의 놀라운 성과에 대한 찬사를 담아 새롭게 선보이는 TH20-08 무브먼트를 적용해 독보적인 정밀성과 속도감을 엿볼 수 있다. 짧은 시간 간격을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디자인을 고안했고, 2개의 달팽이 모양 휠이 특징



이다. 여기에 중앙 핸드가 감속하는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 두 휠은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LiGa 공정이라는 최신 기술로 제작해 포르쉐 911의 놀라운 정밀성을 표현했다. 매끈한 디자인과 견고성을 바탕으로 완성한 이번 타임피스에는 스틸과 골드 버전으로 제공하며, 각 버전에는 아이코닉한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했다. 먼저 위치의 얼골인 다이얼에는 속도와 가속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포인트. 플랜지의 빨간색 선은 최초의 포르쉐 911을 기리는 요소이며, 이는 곧 위치의 움직임과 구동력에 힘을 더한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영감받은 탄성한 레드 컬러 디테일은 핸즈의 컬러 등 위치 전체에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6시 방향 서브 다이얼은 도시의 권장 속도인 50km 표지가 많았던 1970년대 포르쉐의 아이코





A fairytale of the lake

바람도, 구름도 루이 비통의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막지 못했다. 아니, 바람과 구름뿐 아니라 호수와 은은한 파도,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비까지 함께한 한 편의 동화 같은 캠퍼스를 펼쳐냈다. 2024 루이 비통 여성복 크루즈 쇼 리포트.



판타지와 마주한 '변화'의 시간

이탈리아 미조레 호수(Lake Maggiore)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이슬라 벨라(Isola Bella) 섬은 몇 세기 동안 보로메오(Borromeo) 가문의 전설을 간직해왔다. 무한한 초록빛으로 피어나는 수면 위로 신비로운 정원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열린 루이 비통 2024 크루즈 컬렉션. "이탈리아에는 가고 싶은 아름다운 곳들이 무척 많죠. 그중에서도 호수가 주는 신비로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루이 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 제스카에르를 매혹한 이곳에서 마치 동화 속 요정들이 펼쳐는 듯한 축제가 열렸다. 그는 "말을 둘러싼 자연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 물속에서 빠져나와 정원을 거니는 그의 모델들은 아내 정원의 나무와 동화되어 어느새 숲의 요정으로 변신했다. 물결치는 듯한 프린트, 과장된 칼라, 우아한 스쿠버다이빙복을 떠올리게 하는 방수 소재, 상반된 무게와 질감을 지닌 소재들의 믹스 매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니콜라 제스카에르만의 로맨틱하고 시랑스러운 룩들이 런웨이를 가득 채웠다. 호수를 둘러싼 상상 속 수많은 피조물, 용의 날개를 지닌 호수의 인어 같은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물 밖으로 나온 느낌일까. 영화나 오페라를 보는 듯 드라마틱한 의상들은 이번 루이 비통 크루즈 쇼에서도 여정처럼 펼쳐졌다. 색깔이 다양한 마스크와 로마 장신구들이 직접 만든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헤드기어는 의상을 완성하는 중요한 오브제다. 파스텔 톤의 은은한 색은 캐주얼한 폴로버를 시랑스럽게 변신했고,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실루엣은 바람과 함께하는 옷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꽃잎과 나뭇잎을 모티브로 한 오가자 드레스, 여러 겹으로 레이어드된 실크 스커트, 물고기의 비늘을 형상화한 플립 스커트 등은 보는 이들을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호수의 인어들이 물 밖으로 나와 꽃이 되었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꽃 말이지." 셀 수도 없이 여러 겹을 레이어드한 퍼프 소매와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색깔의 보디 드레이프 스윙 드레스를 입은 숲의 요정들, 잠시 동화 속 판타지를 들여다본 듯 몽환적인 시간이었다. 미조레 호수 이슬라 벨라 섬에서 열린 2024 루이 비통 크루즈 컬렉션은 이렇게 또 하나의 전설로 탄생했다.



캐시미어 소재의 그레이 재킷 8백만원,
울 소재의 블랙 셔츠 1백44만원, 실크
& 캐시미어 소재의 브라운 터틀넥
2백48만원, 울 소재의 그레이 팬츠
1백51만원, 우광 카프 스킨 소재의
타비 슈즈 1백50만원 모두 에르메스.

Someone like you
깊어가는 계절, 콰이어트 럭셔리로 완성하는 남자의 가을 룩. photographed by park aron

바진 울 소재의 보틀 그린 컬러
후난 보머 재킷 8백20만원, 코튼
캐시미어 데님 소재의 세도 블루 컬러
캐주얼 재킷 6백53만원, 코튼 소재의
옵티컬 화이트 라운나 5요켓 팬츠
1백10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울 소재의 요런지 컬러
상급브래스트 재킷 4백20만원,
화이트 컬러 슬리브리스 롱
가죽 미장, 울 소재의 그레이 컬러
판츠 1백93만원, 레드 소재의
블랙 컬러를 모두 가격 미장 구찌.

니트 소재의 브라운 컬러 니트 롱
브라운 컬러의 슬리브리스 롱
가죽 미장 재킷, 레드 소재의 브라운
컬러 슈즈 가격 미장 로에세.



니트 소재의 브라운 컬러 니트 롱
브라운 컬러의 슬리브리스 롱
가죽 미장 재킷, 레드 소재의 브라운
컬러 슈즈 가격 미장 로에세.

더블브러스트 핏에 블랙 코트
블랙 & 화이트 컬러 조합 모두
가격 미정 **생선노 율브**
블랙 컬러 팬츠 가격 미정
발렌티노 라스리브 다비 슈츠
가격 미정 발렌티노 기르바



브라운 컬러의 태잉로드 재킷
가격 미정, 코튼 소재의 블루 컬러
핸드메이드 오픈 온 엔드 프렌치 커프스
셔츠 92만5천원, 브라운 컬러 베스트
가격 미정, 브라운 컬러 팬츠 가격
미정, 실크 트윙 소재의 페이즐리 타이
35만5천원 모두 **힐프 로렌 퍼플 리벨**.



삼크 소재의 차콜 컬러 테일러드 재킷 4백80만원, 삼크 소재의 차콜 컬러 부트레드 트라우저 3백30만원, 화이트 컬러의 슬리브리스 톱 가격 미정, 카프 스킨 소재의 쉐시 부츠 가격 미정, 레이크 퍼 소재의 넥 워머 가격 미정 모두 로에베.



블랙 컬러의 구조조인트 재킷, 블랙 컬러 벨트, 카프 스킨 재킷, 레이크 소재의 블랙 컬러 테이, 카프 스킨 소재의 블랙 컬러 카튼 힐, 모두 가격 미정 로에베에 배너.

레이 & 레이더 Hikari Chang
크라이 Michael Wu
크라이 미스터 魏源斌

에르메스 02-542-6622
로루피나 102-546-0615
제니 102-518-0285
구피 102-3452-1524
셀로노 옴므 1577-8841
로에베 02-3479-1785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보렌니 02-2015-4855
말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보타가 배너 02-3438-7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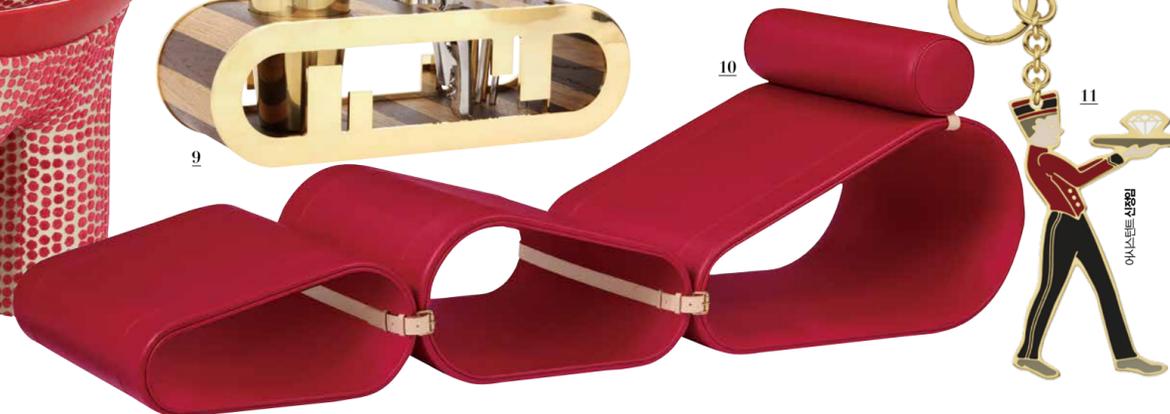


Stay Home

패션 하우스의 미적 감각과 철저한 장인 정신의 조합으로 탄생한 인테리어 셀렉션.



1 귀여움을 자아내는 팬더 스킨 모티브 장식인 특징인 캐러피에 베이비 도자기 머그 50만 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2 부드러운 패들 카트 스킨으로 제작해 우아한 텍스처가 돋보이고, 핸드 스티칭 처리한 가죽 디테일이 섬세한 촉감을 더하며, 구 조적인 실루엣이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리오인 프라임 50만 원대 **발로 로렌 홀**, 문의 02-6004-0265 3 부드러운 둥근 디자인의 포근한 느낌을 배가하는 아파치타 스파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4 배색 그로그렐 파이 핑이 돋보이며, 광택감이 특징인 브리싱 가공 오크 마감 처리한 원목 베이 스가 고급스러움을 전하는 자네토 인클이저 가격 미정 **틀레엔카비나**, 문의 02-3442-6888 5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이 고급스러움을 전하는 동시에 귀여운 강아지 실루엣이 훌륭한 오브제 역할을 한다. 미디엄 비 세트스 M Pup 인형 79만 원 **MCM**, 문의 1600-1976 6 우아한 돌나모 양 폰트에 클래식한 느낌을 전하는 로마숫자와 아라비아숫자의 조화가 눈길을 끄는 브래넨 클락 1백80만 원대 **발로 로렌 홀**, 문의 02-6004-0265 7 개인 맞춤 제작 트렁크 제작 서비스에서 착안해 수작업으로 칠하고 제작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변형할 수 있도록 고안한 로우 에이스의 폴스 체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8 프랑스 리모주 지역에서 생산하는 100% 리모주 포슬린 소재의 팬디 오락 플래이트 가격 미정 **팬디**, 문의 02-544-1925 9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잘 드러내면서 고급스러움을 전하는 황동, 오크우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이루어진 팬디 오락 바 세트 1천2백만 원대 **팬디**, 문의 02-544-1925 10 첨단 기술로 만든 탄소 섬유로 제작해 아주 가볍고 견고하다. 비결짜이는 가벼운 가죽, 인공은 스웨이드로 마감한 마른셀 반다스 스튜디오의 리운지 체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11 페이 지 보이 모티브로 제작한 레커 골드 피싱 메탈 소재의 다이얼 로드 캐러피에 키링 70만 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에디터 **윤자영**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 다중 컷 디자인이 자연스러운 빛을 선사하며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P.H. 2/1 타이틀 1백62만 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6462-6262, 책상에 올려두는 것으로도 오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겹눈에 그려진 라이언과 플로렐 일러스트가 감각적인 무드를 선사하는 그로테스크 가드 프린트 미니 배스킷 캔들 63만 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직경 33mm,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케이스가 장래된 멋을 선사하며 파페주얼 걸룬더와 문패이즈 기능을 갖춘 섀프 외안된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클래식 파페주얼 걸룬더 7327 1억1천만 원대 **브뤼게**, 문의 www.breguet.com, 총 0.6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새겨넣고 화이트 골드로 완성해 단정하면서도 전하는 벨 에포크 네르리스 가격 미정 **다이아나**, 문의 02-515-1924, 마블 디테일 장식인 고급스러운 무드를 배가하는 마블 스퀘어 트라켄 트러이 36만 원대 **구찌**, 문의 02-3452-1521, 로스팅 코팅 처리된 18K 오크 골드 팬츠를 장식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장이며, 목조향 그랑감을 선사하는 듀오 골드 프레스티지 블루 헤브론 GT 섀넬-업 맨넬 1백50만 원 **피파**, 문의 02-554-0311, 빈텔리 디자인과 골드 컬러의 조화로 세련미와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인형 43만 원 **줄리앙 피콜스 by 에실로르스타카**, 문의 02-501-4436, 낙낙한 아이작과 장미시 향기를 장식해 마르에 딱 맞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보관함에도 쉬운 MB01 오버 이어 헤드폰 브라운 83만 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견고한 오크 손잡이와 12시간 넘는 재생 시간, 그리고 톱 패들 에 통합된 무선 휴대용 충전기를 갖추어 포터블 스피커로서의 기능이 뛰어나다. 또 47개의 디지탈 중폭기를 갖춘 4웨이 드라이버 셋업이 280Hz 출력력을 제공해 역동적인 360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베오사운드 A5 디스크 오크 1백79만 원 **방안음음음**, 문의 02-518-1380, 연속적으로 끈개 별은 라인 덕분에 글라스를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유려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허모니 텀블러 55만 원 **비카바**, 문의 02-3448-3778, 과일 향과 딸방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붉은 사보와 배의 향이 어우러지며 부드럽고 긴 여운을 선사하는 싱글몰트 글렌버기 15년 700ml 12만 원대 **발렌티노**, 문의 02-3466-5700, 세라믹 소재로 수작업으로 제작해 특유의 질감이 이름 다른 레지스틀러 18만 원 **아스티에 드 빌라르**, 문의 0507-1328-7098 에디터 **윤자영**



A Man at Desk

작은 아이템 하나에도 근사한 취향이 깃들여 있는 그 남자의 취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슈: 4월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

하이엔드 가전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공간 솔루션을 제안하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는 노현 소품과 창담 소품, 두 곳을 운영한다. 노현 소품은 건축가 톰 메이네(Thom Mayne)와 칼라베라에 의해 완성한 웅장한 아트 월의 VIP 라운지가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며, 가전 상담부터 설치, 시공, 그리고 감리까지 복합적인 공간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제품을 활용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해 가전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창담 소품은 개인의 취향이 좀 더 반영된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다. 가전뿐 아니라 보피, 불탑, 다다, 포컨플, 몰테나, 웬씨, 케탈 같은 프리미엄 가구까지 복합적인 스타일링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가전을 이용한 요리를 제공하는 'Café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브랜드의 철학과 감도를 녹인 공간 인아트리에를 운영해 복합 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위치 노현 소품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33, 창담 소품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60길 13
문의 02-3777-6600

1 노현 소품 1층의 건축가 톰 메이네 디자인 쿠킹 스튜디오, 2 주방 가구와 가전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노현 소품 3층, 3 감담 건축가 칼라베라 창담 소품의 가전관, 4 오스틴 칼 하우스 세프의 Café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국제갤러리

도로에 면한 창을 통해 상경동 풍경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전시 공간과 작가들의 작업이 더해져 감각적인 느낌을 전하는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웰스 스타까지, 상경동의 국제갤러리는 요즘 가장 핫한 복합 미술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1층에 위치한 카페는 그래픽 디자이너 김영주의 변화 작업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전하는 공간으로, 음료와 다양한 디저트를 제공한다. 2층 레스토랑은 아베 고치키 세프가 선보이는 다채로운 계절 메뉴와 함께 정통 프랜차이즈, 일본 퓨전, 이탈리안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동시에 양해규의 신작 '생경한 구어체'가 예술적 풍성함을 더해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층에는 예술이 전하는 영감을 나누고 심신의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 '웰스 K'가 자체 개발 문예작품에 미술과 운동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함을 제공한다.

위치 서울시 중구 상림로 54 문의 02-735-9441

1 양해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레스토랑, 2 국제갤러리의 고즈넉한 풍경, 3 1층에 위치한 카페, 4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비한 3층의 웰스 K.



레이로우 하우스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 들어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레이로우 하우스. 이룩한 미팅을 품은 2층 양옥 구조의 건물로 1층에서는 레이로우의 가구들과 함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템을 소개한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3~4개월마다 소품을 탈바꿈시키는 뮤즈 프로젝트 때문. 브랜드와 같은 사람을 탈바꿈하고 협업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공간을 레이로우의 아이템과 함께 꾸민다. 지금까지 유지선 선우정 아, 그래픽 크리에이터 차인철의 공간으로 진행되는 등 다양한 분야 인물과 함께해 매달 어떤 뮤즈의 공간으로 탈바꿈될지 기대한다.

위치 서울시 상동구 연무장길 20 문의 0507-1479-6114

1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레이로우 하우스, 2 유지선 선우정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직접 테이블, 3 레이로우의 모듈 가구로 꾸민 공간, 4 그래픽 크리에이터 차인철의 작업실.



Where t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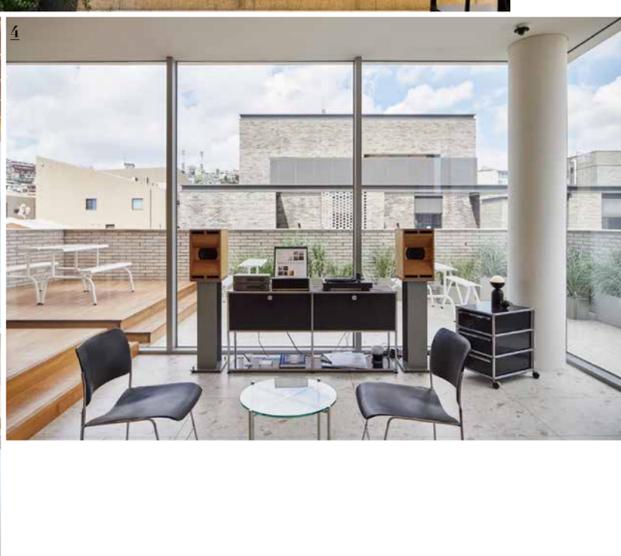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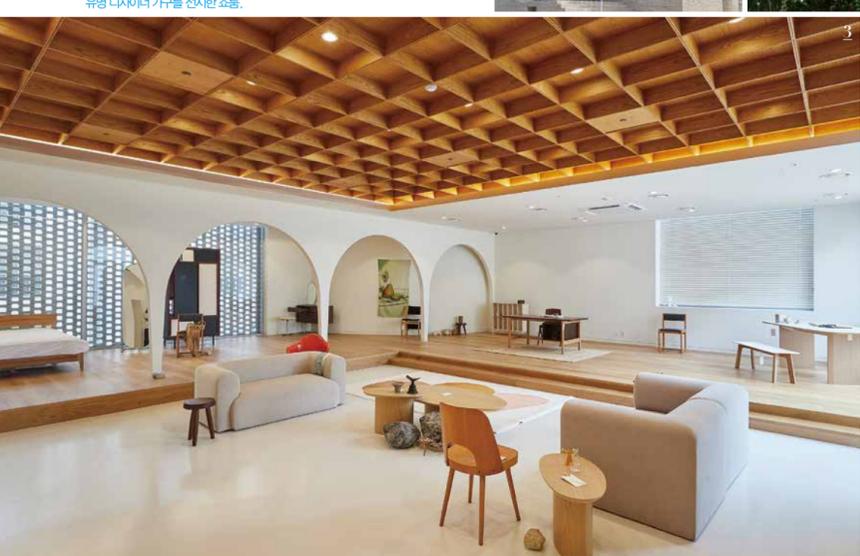
공간 컨설팅을 받고, 직접 요리도 해보고, 예술 작품 감상과 운동까지, 모두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떠오르는 프리미엄 문화 복합 공간 6.

무브먼트랩 한남

'무브먼트랩 한남'은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건물 한 채를 다채로운 콘셉트로 채워 넣은 공간이다. 소품으로 운영 중인 지하 2층과 지상 2~3층에서는 액션카멜레온, 오블리크레이블, 무니도, 바이헤이데이, 텍스처, NPD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 가구를 한곳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 가장자리뿐 아니라 상업 공간을 위한 가구 상담부터 공간 전체에 적용 가능한 인테리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1층에서는 비건 브랜드, 달비와 F & B 브랜드, 비제라늄, 그리고 리빙 브랜드를 큐레이션하는 무브먼트랩이 함께 하는 바 & 다이닝 '트리플 디얼'을 운영 중이다. 무브먼트랩에서 다루는 가구 브랜드의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이트 트라플을 베이스로 한 이탈리아인 플레이트를 맛볼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대서문로15길 8-3 문의 070-5217-2336

1 무브먼트랩 한남 건물 외관, 2 1층에 위치한 바 & 다이닝 '트리플 디얼', 3, 4 국내 유명 디자이너 가구를 전시한 소품.



무제움

가구 디자인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이를 통한 정제된 큐레이션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제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만의 특별한 가구를 들고 싶다면 이곳을 찾길 추천한다.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의 수집과 탐구에서 시작한 무제움이 서초구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다.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가는 가구부터 오즈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기능주의와 형식주의 아래 탄생한 1990년대 모더니즘 가구를 감상할 수 있다. 가구뿐 아니라 건물 자체에서 느껴지는 인터리어적 미학 또한 감상 포인트다. 루프톱에는 탁 트인 시야로 산과 천을 조망하면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길 25-12 문의 02-577-3372

1 홈 데코와 조화를 이루는 다이나믹 콘셉트의 인터리어, 2 티 테이블, 테이블, 소파, 스툴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전시한 지하 1층, 3 인터리어에 무게감을 실어줄 리운지 체어를 디스플레이한 공간, 4 외벽을 화이트 칠로 마감해 심플한 느낌을 주는 무제움의 시육.



세티나인

'세티나인'은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친환경 세라믹 브랜드 이리스, 라미노와 기능에 충실하고 감각적인 세라믹 가구 자체 브랜드 이루디를 만나볼 수 있는 소품이다. 세라믹은 질감이 천연석과 유사하지만 오염, 세균에 보다 강해 새로운 인터리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고객들이 세라믹 주방 인터리어 자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븐과 같은 조리 가구를 선택했다. 이곳에서는 쿠킹 클래스뿐 아니라 시냇물 프라이빗 다이닝 이벤트를 개최한다. 또 세라믹으로 인터리어를 완성한 루프톱은 이벤트 진행 시 샴페인을 즐길 수 있는 리운지로 활용 중이다. 에티어 운영자

위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50길 38 문의 02-545-1888



editor's Pick

피부에도 휴식을 주어야 할 시간.
은은한 향까지 더한 이달의 뷰티템 13.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발몽 바디 24 아워 극진성 피부인 에디티가 사무실에 놓고 수시로 사용하는 제품. 오후가 되면 긴팔티거나 슬리퍼를 신고는 부위에 발라주면 빠르게 흡수되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튜브 타입이라 외부에서도 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무엇보다 향이 좋다. 150ml 18만원. 문의 070-4352-5203. *_by 에디터 장민준*

다들 뷰티 미스 디올 블루밍 부두이르 컬렉션 아도르 립스틱 #682 핑크 블룸 디올스틱과 생기는 컬러에 지속력이 좋아 믿고 사용하는 디올 아도르 립스틱. #682 컬러는 사인 핑크 컬러로 가장 빛나던 20대 입술 컬러를 그대로 재현해주는 듯한 느낌이다. 대체로 플라워를 컨셉으로 프린트한 케이스도 매력적 라이드에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디올 아도르 패션 케이스와도 호환 가능하다. 3.2g 5만5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장민준*

트루몽 거브라임 페이스 앤드 캔들을 즐기지만, 겨울이면 특히 따뜻하고 포근한 향의 캔들과 사랑에 빠진 언니. 트루몽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네 가지 캔들 중 거브라임은 그린 컬러를 메인으로 내부에 금박 장식이 되어 있으며, 벽난로에서 장작타는 냄새 같은 향으로 이 계절에 잘 어울린다. 선물로도 제격 270g 19만원. 문의 02-6905-3324. *_by 에디터 장민준*

바버리 뷰티 인스틸링 보타니컬 오일 스킨케어 라인에 담긴 향에서 피어나는 꽃의 모습에 영감을 얻어 탄생한 향수. 뿌렸을 때 신선한 자연의 흙 냄새와 함께 묵직한 우드 오일의 진중함이 오랫동안 남아 찬 바람 부는 요즘 날씨에 제격이다. 더불어 바버리 뷰티의 시그니처이자 강장력이 느껴지는 투명 보틀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었다. 100ml 35만2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올리브 오일 에센스 프렉션 쉐어 스크린 SPF 50+ PA++++ 겔과 스킨케어 100이 광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된 꼭 챙겨 바르는 면. 이 제품은 가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텍스처와 수분감을 갖추어 최근 자주 손이 건조, 특히 바르는 순간 피부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은 물론, 은은한 광택을 연출해 메이크업 전 스킨케어로서 사용하기에 손색없다. 60ml 15만8천원. 문의 1661-6656. *_by 에디터 장민준*

바디버치 페이스 클리어 업 클렌징 밤 스크베 텍스처 같은 밤 타입 제형이 얼굴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녹는다. 오일과 바덴 포몰러가 모공 속 노폐물과 피하는 물론 마스크와 같은 밀착이 밀끔하게 지워준다. 이후 물이 닿으면 유효성분이 완벽히 세안을 돕는다. 깨끗한 클렌징 덕분에 피부에 윤기가 난다. 100ml 4만9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윤지영*

폴리도 보네 뉴 아이 컬러 림트 #501 비전 오일 레인스 수중 세계 어주어공이 마력을 향해 나아가는 스토리를 영롱한 컬러로 담았다. 입자 굵은 포리아마와 바다의 변화무쌍한 빛에서 영감을 얻은 오렌지, 핑크, 코파라보, 총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매디크업 시 미세한 핑크 은은한 광택감을 부여한다. 6g 10만2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다들 바버리 스킨 글로벌 드롭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편. 그래서 선택한 이 제품은 피부 속부터 수분을 가득 채워주며, 수분감과 보습력 뿌리, 그리고 아성 장미 추출물을 담아 피부 진정은 물론 촉촉한 피부 톤을 더욱 화사하고 맑게 만들어준다. 스프레이로 양을 조절할 수 있어 크기에 한두 방울 정도 섞어 사용하면 좋다. 30ml 21만9천원. 문의 1644-4490.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랑콤 입술퀴 루즈 피우어. 지복함성 피부로 오후가 되면 유분이 올라오기 심상. 이럴 때 입자가 고와 가벼운 제형의 입술퀴 루즈 피우어로 2~3번 톱톡 두들겨주면 어느새 매끈하고 실사한 피부 완성! 아울러 미세한 24K 골드 입자가 들어 있어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진다. 실리카 성분으로 광택 효과를 더해 피부 열까지 낮춘다. 15g 14만원. 문의 080-022-3332.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상투이 프레스스 메탈 브릴리언트 립글로스 블러이드 비르자까지 입술에 보석 기운을 뿌린 듯한 화사함을 부여한다. 컬러 같은 탄성 포몰러와 사인 오일이 결합된 텍스처가 끈적임 없이 유려한 광택을 선사한다. 또 인티옥시던트 그라티니 성분을 함유해 입술을 오래도록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준다. 3ml 6만1천원. 문의 070-4370-7511. *_by 에디터 윤지영*

달바 오가네 어드밴스드 오일 에디티가 날이 추워지면 꼭 구비해야 하는 뷰티 필수템은 오일이다. 페이스는 물론 헤어, 보디까지 수시로 발라주는데, 이 제품은 로즈힙 열매 오일 분연의 은은한 열로 향기를 풍기는 오가네 오일이라 더욱 특별하다. 가볍고 빠르게 스며들어 아로마틱 향이 기분 좋게 향기를 선사한다. 17ml 6만2천원. 문의 070-7714-8428. *_by 에디터 윤지영*

다들 사방 미니 롱 스프레이 클러데이 컬렉션으로 출시한 롱 스프레이로 피우어치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 좋은 미니 사이즈와 언제 어디서든 향을 즐길 수 있다. 소나무의 신성한고 싱그러운 우디 노트에 가을 꽃 미모사 노트를 가미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딱 이 계절에 사용하기 좋다. 50ml 7만1천원. 문의 02-3479-6049. *_by 에디터 신정민*

한스 세컨 스킨 글로벌 루션 #21 아이보리 클러데이 에디션으로 나온 연꽃빛 핑크 카뷰터 컬러. 피우어치 루션에 일등 공신이 될 듯하다. 비르자까지 톱톡 두들기고 피부에 편하게 스며들어 은은한 광택을 촉촉한 남기는 것은 물론, 카라틴이 함유된 피부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12g 3만2천원. 문의 1644-7161. *_by 에디터 신정민*



* 장민준(4대 2년), 신정민(3대 1년), 윤지영(3대 1년), 장민준(3대 1년), 신정민(3대 1년)

SHOWROOM

JEWEL & WATCH

에르메스 워치 컬리 에르메스 4대 수장 로베르 뒤마가 디자인한 아이코닉한 핸드백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리 라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탈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미니 사이즈의 자물쇠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화이트 자개 다이얼 또는 스팅글 화이트 레커 다이얼은 12시 방향에 다이아몬드 17개가 세팅되어 있거나 줄무늬 디자인을 담은 버전 등 대체롭게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542-6622

반클리프 아펠 시간, 자연, 사랑(Van Cleef & Arpels: Time, Nature, Love) 하이 주얼리 메종 반클리프 아펠이 디퓨지엄에서 오는 18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메종의 세계를 펼쳐보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1906년 메종이 탄생한 이후 선보인 3백 개 이상의 주얼리 & 워치 오브제와 90여 점 이상의 오리지널 아카이브를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창작 과정의 첫순간을 담아낸 구아슈 디자인의 아이디어 스케치도 공개한다. 문의 1668-1906

불가리 알레고라 주얼리 컬렉션 젤스톤의 대가, 불가리에서 론칭 20주년을 맞이한 불가리 알레고라 주얼리 컬렉션을 재해석해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다양한 컬러와 컬러로 조화를 이루는 젤스톤 피스가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됐다. 로즈 골드와 옐로 골드 소재로 만나볼 수 있으며 링과 이어링, 그리고 네크리스로 선보였다. 문의 02-6105-2120

에가 르플로르 칼라비 101 컬렉션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타이피스 출시 메종의 독창성과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칼라비 101 컬렉션에 젤스톤 세팅을 더한 하이 주얼리 타이피스를 선보였다. 총 3가지 타이피스로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착용자가 다이얼을 숨길 수 있는 약 2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01 시크릿, 레드 레커 다이얼의 핑크 골드와 스노 화이트 레커 다이얼의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재탄생한 27가지 버전의 101 백글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1877-4201

프리드 아데이션스 블루 프리드에서 메종 최초의 블루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프리드 하이로 컷으로 세공해 프리드 아데이션스 블루를 선보였다. 스톤의 컬러를 아름답게 살리며 깊이를 더한 프리드 하이로 컷을 사용한 이번 새로운 스톤은 메종의 탁월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담았다. 아울러 메종의 새로운 도전으로 탄생한 아데이션스 블루 스톤을 세팅한 하이 주얼리 세트 '포스텐 듀얼리드'도 함께 공개했다. 문의 02-514-3721

리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부티크 매장 오픈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 리도에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부티크 매장을 오픈했다. 이번 리도 부티크 매장은 국내에서 처음 입점한 부티크 매장으로 하이엔드 워치와 더불어 리미티드



및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리도의 혁신한 무드와 다채로운 워치 컬렉션을 새로운 부티크 매장에서 만나 보자. 문의 02-310-5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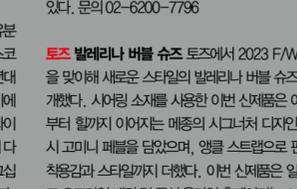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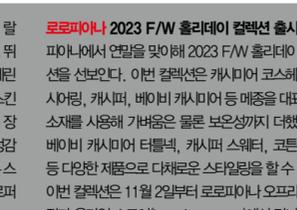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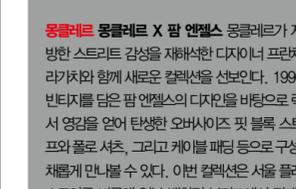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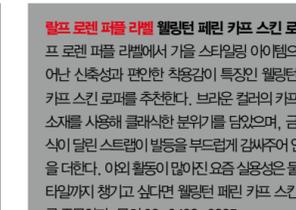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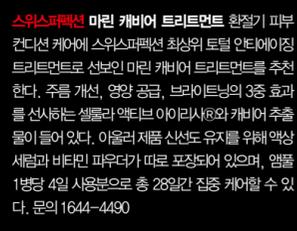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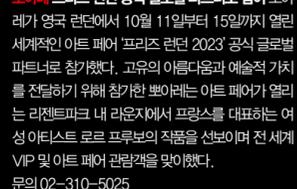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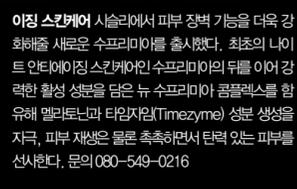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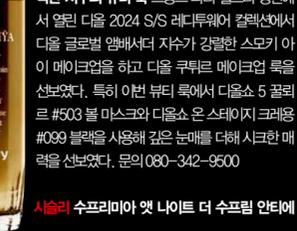
피아제 리얼라이트 갈라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브랜드 피아제에서 새로운 리얼라이트 갈라를 선보였다.



1970년대에 처음 출시한 리얼라이트 갈라는 골드 케이스와 젤스톤으로 장식한 비대칭 라그나 조화를 이루는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아울러 브레이슬릿에 18K 핑크 골드 소재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초소형 링크를 견고히 작업해 메종의 탁월한 금공예적 정세형 기술을 보여준다. 문의 1668-1874



BEAUTY



FASHION



THE POMELLATO TOGETHER AND ICONICA COLLECTIONS INSPIRED BY MILAN

GALLERIA VITTORIO EMANUELE II



POMELLATO.COM 02 3143 9486



Pomellato

MILANO 1967